

감정 골 더 깊어져선 안돼...진상규명 공동 목표 화합을

긴급 점검 - 오월단체·특전사동지회 '반쪽 화해' 안 된다

〈下〉분열된 오월단체, 해법은 없나

지난 19일 열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특전사동지회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는 오월단체 내·외로 심화된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과제를 남겼다.

오월단체 내부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행사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주최측이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율 없이 행사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내적으로는 '오월 3단체'의 한 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행사 불참을 선언하고, 부상자회·공로자회 일부 회원들이 행사 반대 성명 및 집회를 하는 등 분열상을 보여줬다. 외적으로는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행사 당일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21일 광주시 동구 광주YMCA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집회, 성명, 학술대회 등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주최측과 시민단체 간 갈등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앞서 주최측은 행사 반대 여론이 들끓자 '공법단체인 자신들만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대표성을 가지며, 시민단체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행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 세력의 선봉'으로 치부하고 행사를 강행키로 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반대 여론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등이 행사 취지를 잘 모르면서 무작정 반대를 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사과없는 참배, 트라우마 자극
주최측-시민단체 갈등으로 번져
광주·전남 시민단체 21일 대책회의
특전사 양심선언 이끌어내도록
반목 멈추고 대화 통한 해법 찾아야

이에 시민단체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가장 먼저 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선동꾼'으로 지목당해 공법단체에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했다"며 "5·18 가족으로서 당연히 내야 할 목소리를 냈더니 권위를 내세워 찍어 누르려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날을 세웠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도 "행사 당일 조용히 피켓 시위만 할 생각이었는데, 특전사들이 군복 입고 대열을 맞춰 5·18문화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피가 끓었다"며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계엄군이 '질서유지' 차 광주를 왔다는 등 트라우마 가진 피해자들을 일부러 자극하는 것 같았다"고 규탄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단체 간 감정 골이 깊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선언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미 일어난 행사를 물릴 순 없으니, 내부 분열과 반목을 멈추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 가족들은 분열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란 공동 목표를 갖고 화합해야 한다"며 "행사에서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로

라도 특전사들의 구체적인 양심선언과 진실한 사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행사 찬성과 반대파가 서로 대화를 이루지 못하니 감정 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아 회복하기 어려운 감정의 골을 남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화를 통해 갈등의 해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먼저 주최측은 전 국민이 참여해 죽고, 투옥되고, 다치면서 일궈낸 결과물인 5·18이 특정 단체만의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주최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무작정 다그칠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취소 질의 57일만에...외교부 답변 보니 구체 내용 없이 '한 줄짜리 답변' 내놓아 공분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취소 이유를 묻는 질의에 두 달 만에 '한 줄짜리 답변'을 내놓아 공분을 사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보낸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한 질의서 회신'을 20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공문에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 드립니다"는 한 줄의 답변만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양금덕 할머니를 조롱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지켜야 할 1주일의 기간을 넘기면서도 연장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다가 돌아온 57일간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문서 제출 온라인 창구인 '문서24'

를 통해 외교부장관 앞으로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 무산 경위와 이후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질의한 내용은 ▲관련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인권상에 제동을 걸었던 '형평성'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가 피해자 3명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인데 반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규탄성명을 통해 "외교부는 57일 만에 회신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고 민원인을 무시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만남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자 정부가 마지못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박진 외교부장관의 사과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방송사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타워크레인 기사 월레비 첫 '임금 인정'

광주고법 판결...정부 불법행위 규정과 배치돼 주목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월레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월레비는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공식 수당으로 최근 정부는 월레비 지급을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꼽고 경찰과 노동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월레비를 임금으로 본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월레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박정훈)는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A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B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6일 내렸다.

A업체는 2016년부터 광주지역 6곳의 아파트 신축공사 및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로부터 형틀·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에 시공사는 계약을 맺은 타워크레인 회사들로부터 기사 B씨 등 16명을 현장으로 보내 건설 장비 및 골재를 운반케 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타워크레인 업체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간의 근무수당 및 월레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16명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총 6억 5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업체는 월레비는 부당이득이라면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월레비 지급에 대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기사들이 타워크레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았던 점, A업체로부터 연장 근무에 대한 시간의 수당도 지급 받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기사들이 수령한 월레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업체가 월레비 지급의무를 알면서 월레비를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A업체 정구를 기각하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월레비의 성격에 대해 "월레비 지급은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업체와 운전기사들 사이에 월레비 지급에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 A업체가 시공사와의 계약시 월레비 부담을 포함해 계약한 점, 월레비 지급과정에서 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강제한 점이 없는 점, 만약 기사들이 작업을 거부 하더라도 A업체는 시공사에 비용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hh@kwangju.co.kr

명품 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